

제목	나만의 속도로 발효되는 음식, 진행중인 나의 삶		
소속 대학	인문대학	소속 학과	러시아학과
학 번	2024****	이 름	김**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올라가는 부추가 가득 들어간 반죽. 그 반죽이 기름과 불을 만나 나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 우리집 부추전은 항상 특별하다. 부추들이 서로 엉길 정도로만 밀가루 반죽을 쓰고 청양고추와 건새우 한 줌을 넣어 재료의 향을 살리는 특별한 부추전 레시피. 이 부추전이 식탁에 오를 때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는 행복을 나누곤 했다. 나에게 이 레시피는 우리 집만의 일상이자 가족들과의 행복한 추억이었다.

평화롭던 부추전과 관련된 추억에 묘한 균열이 생긴 건, 우연히 집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 부추전을 대접했을 때였다. 다른 집들과는 다른 우리 집 부추전의 비주얼과 건새우 향을 보며 친구들은 낯설어했다. "이 집은 전을 되게 특이하게 부친다"라며 무심하게 던진 말과 시선을 마주한 순간, 나의 내면에서는 이상하게도 부끄러움이 피어올랐다. 고유한 매력이라 믿었던 맛과 냄새가 어쩌면 남들의 기준과 다른 '틀린 레시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긴 것이다. 타인의 시선 앞에서 나의 익숙한 일상을 순간적으로 숨기고 싶어지던 묘한 기억이다.

부추전뿐만 아니라 식탁의 가장 보편적인 음식인 된장찌개만 보아도 그렇다. 어떤 집은 된장에 막장을 섞어 구수하게 끓여내고, 어떤 집은 된장만을 가지고 맑게 끓여내며, 또 다른 집은 차돌박이를 듬뿍 넣어 묵직한 기름진 맛을 즐긴다. 이처럼 집집마다, 지역마다 각자의 삶의 궤적이 묻어난 고유의 레시피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물질이 아닌,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사적인 영역이자 정체성이 묻어 있는 개인의 서사를 읽어내는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토록 당연하고 아늑했던 '나만의 레시피'와 그 냄새가, 문밖의 세계로 나가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전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연극 <하리보 김치>를 관극하며 깨달았다. 무대 위에서 익어가던 김치전의 냄새는 한국인인 나에게는 비오는 날의 기억이자 향수였으나 누군가에게는 불쾌함을 주는 이국적인 악취이자 배척의 근거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타국에서 이주민이 마주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음식'이라는 지극히 본능적인 경계선을 통해

포착해 낸다. 극 중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가졌으나 인생의 대부분을 독일에서 보낸 작가는 무대 위에서 덤덤하게 김치전을 부치며 자신의 서사를 이야기한다. 팬 위에서 기름이 마찰하며 내는 소리는 주말마다 우리 집 주방에서 들리던 부추전이 익어가던 소리와 유사하였고, 연극을 보는 내내 예전에 느꼈던 부끄러움이 생각났다. 이러한 익숙한 미각적 안도감은 공간이 국경을 넘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작가는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를 들고 독일에 도착했을 때, 비닐봉투 속에서 '발효'를 거치며 부풀어 오른 김치 냄새 때문에 낯선 이국땅에서 거대한 벽을 마주해야 했다고 고백한다. 한 개인의 삶에 온기를 전하던 발효의 향기가, 타국의 빌라 입구에서는 '고양이 시체가 썩는 냄새'라는 지독한 배척의 언어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 순간 무대를 온통 집어삼키는 강렬한 붉은 조명은 김치의 빛깔인 동시에, 타국 사람들의 매서운 시선 앞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오른 작가의 얼굴을 시각화한다. 내가 가진 가장 고유한 뿌리가 거대한 타인의 세계 앞에서 혐오 물질로 거부당할 때, 인간은 숨이 막히는 듯한 '질식'을 경험한다. 기차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마늘 냄새가 나니 고개를 돌려 달라"고 말하는 역무원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Sorry"뿐이었다는 고백은, 정체성의 박탈이 얼마나 일상적인 폭력으로 다가오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이 질식의 순간 속에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식습관이 유럽의 국민 젤리인 '하리보'를 씹는 것이라는 점은 음식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하리보는 인공적으로 가공되어 완벽하게 규격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음식이다. 냄새라는 강력한 기호로 정체성을 규정당하고 차별받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유한 향을 풍기는 발효 음식을 포기하고 무취의 가공식품 뒤로 숨는 서글픈 생존 레시피를 택한 것으로 느껴진다. 우리집 주방의 부추전과 된장찌개가 나를 보호하는 따뜻한 갑옷이었다면, 타국에 선 이방인에게는 식탁 위 음식을 감추고 무취의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한 보호색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나의 음식을 부정당하며 존재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더 이상 음식은 맛의 영역이 아닌 내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있는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음식을 통한 정체성의 탐구는 비단 타국에 선 개인의 이주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극이 나에게 던진 또 다른 거대한 담론은, 국가와 공동체의 정체성 역시 하나의 커다란 '발효 과정'이라는 통찰이었다. 한 사회가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고유한 시스템과 가치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은 밀폐된 항아리 속에

서 재료들이 부딪히며 고유한 맛을 찾아가는 인내의 시간과도 같았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은,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지향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삭혀내야 했던 사회적 발효의 순간들이었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은 저마다 다른 '냄새의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군인의 신분으로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했던 작가의 아버지는 그 시절 마주했던 현실의 충격과 비릿한 현장의 '냄새'로 인하여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내면의 상흔을 얻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어떠한 닭 냄새도 맡지 못하는 감각의 불능 상태가 된다. 세월이 흘러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 골목마다 치킨집 창업 붐이 일어났을 때, 거리에 진동하는 닭 냄새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오랜 고향을 떠난다. 이렇듯 **공동체**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개인의 삶은 '질식'당하고 만다. 음식이 집집마다 저마다의 레시피가 달라 고유한 맛을 가지듯, 역사라는 거대한 집단 역시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의 맛으로,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비극의 맛으로 각각 다르게 발효된다. 작가의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며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변화는 역사라는 집단적 기억이 결코 개인의 삶과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 결국 음식과 냄새는 단순히 혀끝을 자극하는 물질을 넘어, 한 인간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시대의 지문을 새겨넣는 가장 사회학적인 연결점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거대한 역사나 국가라는 단위조차도 결코 단 하나의 맛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 안에서도 지역마다 김치를 담그는 레시피가 전혀 다르듯 말이다. 중부 지방의 김치가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낸다면, 남부 지방의 김치는 젓갈을 듬뿍 넣어 진하고 묵직한 맛을 발효시킨다. 같은 국적, 같은 시대를 공유할지라도 우리가 딛고 선 지역과 환경에 따라 정체성의 레시피는 다채롭게 분화된다. 이러한 음식의 속성은 문득 나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캠퍼스라는 울타리 안에서 언제부터인가 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격화된 스펙과 정형화된 정답에 나를 맞추려 분투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마치 나만의 고유한 향을 잃어버린 채, 공장에서 찍어낸 '무취의 하리보 젤리'처럼 무색무취의 존재로 규격화되어 가는 묘한 질식감과 같았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맛을 내는 존재가 되고 싶은지 고민하기보다, 사회가 미리 짜놓은 획일적인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가려 노력하기 바빴던 탓이다. 그러나 연극의 막바지에 등장한 '장어 이야기'는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장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곳을 비

로소 고향으로 삼는다. 그 모습을 보며 정체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과거에 어떤 재료로 시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지키고, 어떤 맛을 내며,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세상에 단 하나의 완벽한 부추전이나 된장찌개 레시피가 존재할 수 없듯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타인이 규정한 하나의 정답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었다.

주말마다 주방을 채우던 부추전 냄새와 다른 음식들의 맛은 타인의 시선에 맞춰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나온 시간인 동시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나를 지탱해 줄 단단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타국의 낯선 시선 앞에서도, 혹은 정답을 재촉하는 일상의 식탁 앞에서도 우리 집만의 냄새를 그저 가만히 마주한다. 내 안의 고유한 향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풍겨낼 때, 내 삶 역시 나만의 속도로 맛있게 발효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